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 롬 5:12-21

한 줄 요약 :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을 낳았지만,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었다.

1. 첫째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만도,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길에 서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모세 시대 이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임했으므로,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즉 어찌 됐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만 죄를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판에 쓴 율법에 의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 어깨 위에 그 책임을 올려놓지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2. 둘째 아담의 순종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위에 심판을 내리셨고, 결과적으로 아담과 전 인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이기시고 자신을 영접한 자들에게 칭의를 가져다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의 죄를 통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임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의 타락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만큼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영원토록 우리는 의와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 롬 10:9-17

한 줄 요약 : 차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담대히 전하자!

1. 차별 없는 구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십사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 즉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요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실현되는 걸까요? 구원 앞에 부름이 있습니다. 부름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앞에 들음이 있습니다. 들음 앞에 전파가 있고, 전파 앞에 보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며,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파송하지 않으시고도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믿은 성도를 높게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로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2. 성도의 사명,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을 타락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파송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 롬 13:8-10

한 줄 요약 :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자.

1.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빛(의물)을 더욱 많이 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피차 나타내어야 할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성도들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는 보편적인 대상에게까지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크나큰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넘치게 베풀고, 서로 사랑의 빛을 많이 져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웃을 향한 차별없는 사랑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단지 옆집이나 길 건너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혈통이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행동과 결단> - 수 2:8-14

한 줄 요약 : 위기의 순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자!

1. 믿음의 행동

여호수아는 싯딤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어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창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창녀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와 라합의 집에 유숙한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위기에 처한 정탐꾼을 보호해 주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자신이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위험을 자초한 거죠. 라합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군인들에게 거짓말하며, 그들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숨겨주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집들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라합은 불안해하는 정탐꾼들에게 세 가지를 증언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니, 적들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는가에 대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

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쩌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2. 믿음의 결단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위해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찾아오는 위기로 인해 굉장히 두렵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1. HOW 주석
2. 엑스포지멘터리
3. NIV 적용주석
4. 매일성경전집
5. QA시스템 성경연구